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깨닫기 위하여 겸비하라      성경: 다니엘 10장 12~21절

Tag: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렌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십시오

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단10:13-21)

다니엘은 장래에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다.

70년 포로생활만으로도 고달픈 일인데, 그 이후 장래에도 큰 전쟁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묵시를 받게 되었다.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다니엘은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 그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맛있는 음식도 절제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였다.(치장)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였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말기를 바란다.(부끄러운 사람) 나의 후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에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하였다.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한게 아니라, 장래 세대에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하였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한 이유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요인들을 제거한 것이다.(여행, 여가, 유희, 요리, 운동, 치장, 건강, 소비) 또한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정을 아뢰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비통한 마음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게 된다.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이 되는 날 다니엘은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된

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가 예수님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단어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즉시 천사를 파송하였는데, 영적인 전쟁에 가로막혀서 21일 후에 오게 된 것이다. (다니엘은 21일 후, 나는 며칠 후?, 교회와 함께 하자.)

바로 바사왕국 군주(바사 왕국 담당 하늘의 악한 영)가 막아서고 휘방하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하였다.

다니엘은 그 인내의 21일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읽고, 시대의 될 일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똑 같이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다.

저 악한 영들은 대적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악한 영들을 방치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추락한다. 추락이 반복되면 아프리카 원주민이 될 것이고, 상승을 반복하면 뉴욕 맨하탄이 되거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다. (결국은 자연 속의 맨하탄이 될 것이다.)

(지리적 요건상 노숙자가 되거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거나, 상승을 반복하면 강남 빌딩 숲에서 살게 된다.)

삶의 레벨마다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 감옥에 가면 양아치나 조폭들과 상대해야 하고, 강남에 가면 사기꾼들(혹은 이기적인 졸부들)과 상대해야 한다.

방법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경우가 많고, 세속적인 방법을 구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천군천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천군의 사령관은 미가엘이고, 천사의 사령관은 가브리엘이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경건한 삶을 살고 수시로 겸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2

성경: 디모데전서 1장 9~11절

Tag: